

3. 속초-나진간 여객 직항로 개설 추진의 의미

- (개요) 신정부는 '정경 분리'를 통한 남북 경협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, 속초-나진간 여객 직항로 연내 개설을 추진할 방침
- (의미) 당장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않으나, 북한의 개방 유도과 남북 경협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상징적 의의는 클 것임

(1) 항로 개설 추진 배경과 현황

○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

- 신정부는 '정경 분리'를 통한 남북 경협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同 항로의 연내 개설을 추진할 방침인데, 이는 신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인 '남북 경협 확대'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의 하나로 채택됨(세계일보 2/2)
- 同 항로는 속초에서 북한의 나진선봉지대를 경유하여 중국 연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한·중·북 3국간 여객 해륙 복합 수송 루트의 일환임.
 - 백두산(중국측) 관광을 위한 루트 개발에 주목적을 두고, 1995~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

○ 추진 경과와 쟁점 사항

- 1997년 11월 북경 실무 회의에서 항로 개설에 남북한이 공감했으나 우리측 여객의 신변 안전 보장과 분쟁 해결 방안 등에서 이견(異見)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
 - 한국의 입장: 기본적으로 당국간 직접 협상에 의한 항로 개설을 주장. 예컨대,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이 우리 정부에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 요구
 - 북한·중국·UNDP: 남북 양자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나 UNDP 틀 내에서 두만강 지역의 국제적 합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

(2) 항로 개설의 의의와 효과

○ 의의

- 당장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으나, 상징적 의의는 상당히 클 것임
 - 항로 개설시 중국에는 실익이 크나, 남북한에는 실익이 크지 않겠지만 북한의 개방 유도과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이바지 할 것임

○ 효과

- 대중·대북 투자 협력 사업 증진 효과: 나진·선봉, 연변 지역에 대한 관광 사업을 증진시키고, 관광 산업 및 수송 산업에의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
- 남북한 물류 연결 사업의 촉진: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, 해로와 항로를 연결할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임
 - 육·해로 연결 사업은 남북 기본합의서 제3장 19조의 이행이라 할 수 있음
- 다자간 공동 관리 방식의 적용 범위 확대: '다자간 공동 관리 방식'이 적용될 경우, 남북 경협에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임

(3) 사업의 평가와 전망

○ 사업성 분석

- IMF 관리 경제 하에서 투입 비용은 증대하는 반면 관광객 감소 등 예상 수입의 감소로 상당 기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 - 국내 선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, 적자를 감당할 능력있는 선사가 필요한데 우리측 주체인 (주)동북 페리는 규모가 작아 중국이 우려하고 있음
 - 그러나 同 항로 개설을 초기 단계부터 추진해 온 회사가 (주)동북 페리여서 사업 주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현상황에서 同 항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정부나 유엔, 또는 국제 금융 기구 등의 재정적 지원이나 국내 대기업과의 제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○ 평가와 전망

- 현재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국가는 중국으로, 연변 지역의 관광 및 지역 경제 개발에 큰 실익이 있을 것이지만, 북한은 여객 통과 수수료 수입을 제외하면 다른 이익은 없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음
- 그러나 同 사업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, 일반인 방북에 따른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과 같은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점들이 있음. 특히 신변 안전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
- 따라서 同 사업은 그리 쉽게 성사될 문제가 아니라 하겠음. 더욱이 IMF 체제의 극복이 최대 과제인 현 상황에서 同 사업의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당장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않으나, 북한의 개방 유도과 남북 경협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상징적 의의는 클 것임

(이 태 섭)